

3월부터 닫힌 학교는 아직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샬롬~~ *^_^*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문안드립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곳 베트남은 7월 중순경 2차 확산과 부분적 봉쇄가 있었지만 9월 16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제 되었습니다. (교제 가운데) 2차 확산 초기 검사키트가 부족하고 확진자가 다낭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여 지금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정복되어 전세계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뉴스
베트남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출에 차질을 빚고, 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을 감원하고 고용을 하지않아 베트남은 실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행업이 90% 이상 줄어들어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던 지난해에 비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호텔업과 숙박업 음식업등은 문을 닫거나 임시휴업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직원들은 감원과 실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의 간격이 커서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의 또다른 종교적인 문제는 이단종교들의 문제입니다. 당국은 공문을 내려보내어 “한국의 이단종교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며” 자국민과 학생들에게 주의 권고를 하는 한편 피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전한 종교단체들까지 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따르고 한국인에 대해 경계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베트남인들은 전통적으로 서양인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인 호의와 선망을 가지지만 같은 아시아인(특히 한국)은 질투와 시기, 경쟁의 상대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점은 베트남에서 1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힘든 점이라 하겠습니다.

문화, 기후 이야기.
베트남은 지형이 길어서 북부와 중부 남부로 구분됩니다. 북부 지역은 사계절이 있고 남부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중부지역은 매년 태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태풍과 홍수의 피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태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성격이 부분됩니다. 북부지역은 겨울이 있는 관계로 준비성이 강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두꺼운 패딩을 준비하고 음식도 많이 절약함으로 식단이 단순한 편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편입니다. 중부지역은 잦은 자연과 기후의 재난으로 성격이 강인하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수로 논밭이 잠기고 집이 잠기면 묘지를 구할수 없습니다(베트남은 농지에 많이 묘지를 만듭니다) 장례가 발생하면 쪽배로 유해를 운구해 서 잠수를 잘하는 사람이 그 유해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돌로 눌러놓는 수장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부지역 사람들은 환경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남부 지역은 과일과 곡식 수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됩니다. 사시사철 더운 계절이므로 옷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리가 풍부함으로 특별히 먹는 것에 걱정이 덜하고 낙천적인 편입니다. 지난주(9/26-27) 저희는 새가족 초청식과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처음 계획은 8월 첫째주에 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행사 1주일 앞두고 다낭지역에서 코로나 2차 확산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모임과 행사가 금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행사를 위해 6월부터 매주 세례교육을 하며, 장소물색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침례자 30명과 새가족 초청 50명, 봉사자 20명 정도로 하여 2대의 버스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변경하여 1박2일 (침례 준비중)의 일정으로 약 350km 떨어진 마이쩌우란 곳에서 1박과 여행을 하고 그 다음날 이동하여 아퀼라라는 마약약자 치료센터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 부탁하여 사용하지 않는 성가복을 배송받아서 준비하고, 차량을 1대 더 증차하여 차량3대로 나누어 박닌지역과, 하노이지역, 중부지역인 탕화의 센터까지 함께하여 오전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오전예배 때는 약 39명의 결신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오후 침례식에는 3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사탄의 꾀계가 방해하고 우리를 조롱하였지만 금식과 침묵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함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늘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회장님과 직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강건하시고 계획하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베트남 하노이이00 장00 선교사 --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0년 10월 18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파송 71%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히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날들이지만 모든 시선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품어주신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심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훈련시켜 주시고 선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사랑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영혼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히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날들이지만 모든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립니다, 미안마 중부 개척사역지에서 ~~

--선교사훈련원1기 광현섭 엄성화 선교사--

불가능할 것 같았던 !!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 디베라의 아침 선교센터 소속 마을 선택들의 인도로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각 테이블에서 이끄는 청년들과 아이들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꿈 꿉니다

코로나 시대 전략적 선교 미안마 스토리 개척 선교지 마을에서 써 내려가는 미안마 선교행전 2020. 10. 6. 소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6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던 수상마을의 후배 어린이들에게 디베라의 아침 (MOT) 선교센터의 스텝으로써 대학에 다니거나 이번엔 대학에 합격한 마을의 언니, 누나들이 선생님이 되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생활 환경을 인도하는 선교센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선교사역의 기초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대부분인 수상마을 극빈자 가정들... 학교도 문을 닫은 상황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여기며 6개월이 방치 되어있던 아이들이 소정수상 선교센터에 모여 테이블당 선생님 1명과 아이들 2~3명씩 앉아서 그 동안 놓았던 책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세대가 방치 된다면 미래도 방치되는 것이며, 그것은 연약한 삶이 반복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에 마을 책임자들을 설득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선교사역의 기초 마을의 마음을 여는 사역이 진행되네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목표를 향하여....

회색빛 칠패 모든것이 멈춘 미안마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전으로 자라는 희망의 빛들 ... 선교를 해야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

코로나 시대 전략적 선교 미안마 스토리 개척 선교지 마을에서는 2020. 10. 6. 소식

미안마 선교행전

지역 정부 학교가 6개월째 폐쇄되어 수업이 이루어 지지 못하기에 매일 수상 선교센터에서 오전 10시 ~12시 까지 학년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선교 개척지 물 위의 아이들

코로나 시대 전략적 선교 미안마 10월 10일 스토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팬데믹 기간에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베네수엘라에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1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 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17절

귀한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 전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이 이 시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저와 동역자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베네수엘라에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며 늘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베네수엘라 상황**
3월부터 시작된 자가격리 시간이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 도시간의 이동도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나라에 휘발유가 바닥 난 상태라서 지방은 휘발유를 구할 수 없고 카라카스도 쉽지 않습니다. 수도와 전기도 전혀 수리,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갈수록 나빠져서 언제 다시 대정전이 올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니다. 물가는 이제 달러화가 되어서 해외와 다를 바가 없는데 정부의 공식 최저임금은 이제 2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만 정부의 공권력으로 목숨을 잃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2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이상 데모도 반정부시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베네수엘라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나라가 되어 정금과 같이 다듬어져 중남미의 모델이 되는, 부흥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 신학교 사역 - 온라인 강의**
할렐루야! 지난 2월달 이후 팬데믹 상황으로 모이지 못한 베네수엘라 신학교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2회, 온라인 ZOOM 으로 신학교 모임을 가졌습니다.우리 주님의 말씀과 복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기에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임이었습니다. 첫모임은 한기홍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후 은혜선교부의 안영식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의로 뜨거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작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온라인 모임이었기에 과연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역이 가능한지, 어려운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전기, 인터넷, 교통 등등)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순종하여 받을 띠기만 하면 그 후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넘치는 은혜와 기쁨의 승리를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70여명의 목사님들이 신청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전기사정과 정말 좋지 않은 인터넷 환경으로 평균 110 - 140여명 정도의 목사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집에서 인터넷이 안되어 인터넷 신호를 찾아 동네 공원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 부부는 1시간을 걸어 인터넷이 있는 곳에서 강의를 듣고 다시 1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사모함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온라인이었지만 함께 교제하며 말씀 듣고 찬양할 때 목사님들께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데 이번 신학교 모임을 통해 중, 남미의 10개 나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과테말라, 파나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멕시코 그리고 미국)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모임이 끝이 아닌 중남미의 새로운 연합 사역의 시작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남미에 하실 주님의 일들이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모임을 하는 동안 신학교 목사님들과 함께 5주간 ZOOM LIVE에 모여 함께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교 목사님들만 초청했다가 다음엔 대학생 사역의 학생들 그리고 교회들도 초청했는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주에는 210여명이 모여 함께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 모임이 끝났지만 현지교회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여 새벽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께서 이번에 받은 은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이 어려운 상황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다음 페이지에 계속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센 베제르부르그 조경호 조영숙선교사--머리에 종양을제거하는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치료의 손길과 평강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2. 터키양창모 양옥경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3. 남아공 이은원 선교사--저의 큰딸 은혜가몸에 통증이 있어 오늘 병원을 갔는데 의사로부터 자궁 경부에 이상이 있어 자궁을 들어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은혜가 나중에 난민들을 돕고자 지금 케이프 타운에서 심리학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지리리 고생을 많이하던 딸로 인해 저희 부부 가슴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해영선교사-지난 금요일 조직검사 결과 왼쪽 엉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앞 전 검사 결과와 다르게 나오니 저희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료 일정을 어떻게 할지 어려운 상황이며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5. 네팔 이예신 선교사--몇 일 입원하여 다시 항암을 시작하자고 하네요 많이 두렵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니 큰 힘이 되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 스웨덴 김명자선교사 체장암이하나님의은혜로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CT결과가나왔다고합니다 할렐루야!

팬데믹 기간에도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베네수엘라에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2

*** 아마존 선교센터 땅 구입**
할렐루야! 지난 선교편지에 기도제목을 나누어 드렸던 아마존 선교센터의 옆에 있는 대지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이동제한으로 아마존에 직접 저희가 갈수 없었지만 동역자인 벨로 대령이 저희 대신 땅 주인과 만나서 문서를 확인하고, 협상을 잘 해서 지난 주 땅문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대지는 20.6m x 30m 로 총 618m2 이고 대지 안에 17년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216m2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라 많은 풀들과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곧 포크레인을 불러 땅을 정비하고 벽을 쌓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대지를 통해 인디언 사역과 아마존 현지교회들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쓰시도록, 또 주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기도합니다.

*** Ven y sana**
카라카스 8곳의 빈민가의 교회를 통해 어린이 밤상공동체를 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사역을 못하는 동안 VEN Y SANA(와서 나오라)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필요한 기본약품을 빈민가의 교회를 통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아스피린, 이부펜, 비타민 C, D). 정부 한달 최저임금이 2달러가 안되는 상황에서 약을 구하지 못해 열이 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간증들을 보내오십니다. 현재 300여 봉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재 빈민가에는 소독이나 방역이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약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한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 대학생 사역**
길어지는 자가격리 시간으로 모이지 못하는 학생들을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교회, 예체능, 정치, 교육, 가정, 경제, 미디어) 모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독서 토론도 하고 각 영역에 필요한 세미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간은 각 영역의 리더들과 매주 2번씩 온라인으로 모여, 성경적 세계관을 각 영역에 스스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각 영역의 리더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더욱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 베네수엘라에 필요한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10, 11월 사역계획**
- 성경적 세계관 학교 -
10월 12일부터는 베네수엘라 교회를 대상으로 성경적 세계관 학교, 기본코스 8주를 (매주 1강씩 온라인 강의) 시작합니다. 500명을 목표로 접수 받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광고가 나간 지 하루만에 340명이 접수했습니다. 8주간의 강의동안 주님께서 감사들을 주관해 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강의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베네수엘라가 변화하는 시작되는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AFA FESTIVAL Venezuela & Colombia -
팬데믹으로 올해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한번도 사랑의 불꽃(AFA,TresDiaz)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온라인으로 사랑의 불꽃을 졸업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가족 이야기**
예준이가 새로운 현지 중학교에 입학하여 지난주 개학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을 온라인으로 밖에 만날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예준이가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 좋아합니다. 항상 밝은 예준이가 이제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중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며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되기를 기도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림이도 가끔은 들쭉날쭉하지만 큰 문제없이 사춘기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대신 매일 아빠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이름의 뜻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준), 기다리는 (예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베네수엘라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해주세요

--베네주엘라 김도현, 강미애, 김예림, 김예준 선교사 가족--

